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98년 계란 생산잠재력 증가

전년에 비해 12% 높아

국가 금융위기로 환율이 배이상 높아져 사료 원료 수입이 중단된다는 비보 속에서도 양계산물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타 축산물과는 대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소비가 둔화되는 시점으로 접어들면서 가격은 하락하여 고시가를 기준하여 27%가 낮아졌다. 실거래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년 계란 생산 잠재력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약 12%가 높다. 비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계란생산이 많아질 것으로 예고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서둘러 경제성이 낮은 노계도태를 서둘러야 할 때라 보여진다.

양계업계 리스사용액 1억불 추정

채란업계가 가장 많이 이용

본회는 환율상승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외화리스 사용 농가의 구제책을 마련키 위해 실태파악을 한 결과 양계부분에서 활용한 리스액은 약 1억달러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농림부와 리스협회에 원금 상환을 환율이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이미 같은 입장으로 건의를 한 결과 어려운 입장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볼 때 양계업도 별도의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닭질병 증가일로

가금티푸스, 마력에 대비

양계질병의 증가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판리가 되지 않아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가금티푸스의 발병은 연중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절정기에 이른다. 이제는 농장마다 면역이 생겨 질병이 발병하여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마래도 발병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계업계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엘니뇨현상으로 기온급상승

계사 온도관리 철저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낮의 기온이 4월에 이미 30℃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임에 따라 영남과 영동지방에서는 계사내 온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때아닌 환기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의 경우는 6월경이나 되어야 30℃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2개월 빨리 수온주가 올라가 모기, 파리 등 양계업에 질병 피해를 주는 곤충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질병발생도 현격히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질병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대책 강구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용종계 환우계 증가

복병아리 생산량 많을 듯

지난 '97년 하반기에는 육계가격의 저조로 병아리 값이 나빠 종계입식이 감소하여 '96년 동기보다 약 4%가 감소하였는데 복병아리 생산을 위해 노계가 도태되지 않고 환우를 거쳐

종란을 생산하는 경향으로 유지가 되어 유효기간내의 종계가 생산할 병아리 잠재력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종계사료 생산량이 기대치보다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로 환우계에서 생산되는 육용 실용계가 많다고 보는 것이 종계업계의 관측이다.

'98종계양허관세 배정물량

총 966,287수로 확정

'98년도에 수입될 종계의 양허관세 추천물량 실수요자별 추가배정 집계에 의하면 원종계 272,912수, 종계 693,375수로 확정되었다.

원종계는 6개 업체에서 육용계 261,962수, 산란계 10,950수가 수입될 예정이고 종계는 13개 업체에서 산란계 598,000수, 육용계 95,000수가 각각 수입될 예정이다. 이들 배정물량은 국내 경기여하에 따라 실제 수입량은 조절될 예정이므로 소비가 위축되어 종계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겨울철 계사화재 원인

전기누전 사고 가장 높아

본회가 충남, 충북, 전북, 강원도를 대상으로 겨울철 계사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4개도에서 금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총 11건이 발생하였는데 육계사보다 산란계사의 화재사고가 많았다.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 및 누전이 5건으로 가장 높았고, 열풍기에 의한 사고는 2건으로 예상보다 낮았다. 논두렁을 태우다 불길이가 계사로 옮겨붙은 사례도 있어 가을에 계사주변의 무성한 풀을 제거하여 화재위험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계**